



보도시점

2026.5.10.(일) 11:00
5.11.(월) 조간

배포

2026. 5. 8.(금) 16:00

농식품부, 장관과 직원이 함께 조직문화 혁신 약속

- 불합리·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약속 탐5」 선정 -
- 조직문화 혁신이 국민을 위한 고품질 정책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조직 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송미령 장관과 전 직원이 참여하여 선정한 「약속 탐5」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약속 탐5」는 지난 3월 업무점검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이 강조한 상호 존중과 배려로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특히, ‘간부 모시는 날’, ‘갑질’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되었다.

「약속 탐5」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 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내부 심사, △직원투표 등을 거쳐 가장 공감대가 높고 시급한 5가지 실천 약속이 최종 선정되었다.

<존중과 배려의 「약속 탐5」>

- 하나, 말하기 쉬운 조직, 불이익 없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 하나, 업무는 일과 시간에만! 퇴근 후엔 '로그아웃' 존중하겠습니다.
- 하나, 혼자가 아닌 우리, 책임도 해결도 함께하겠습니다.
- 하나, 지시는 구체적으로, 보고는 명확하게, 피드백은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 하나, 의전은 슬림하게, 소통은 힘하게 일하겠습니다.

「약속 탑5」는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함과 개선 희망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확보된 조직의 유연성과 활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농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약속 탑5」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장관과 소속 기관장들이 조직문화 개선 「약속 탑5」서약서에 서명하고, 전 부서 및 소속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행을 탈피한 다양한 시도로 행안부 주관 '25년 조직문화 개선 경진대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도 정부혁신 어벤저스 운영, 관행격파 아이디어 공모, 중앙부처 최초로 시도한 직급 호칭 파괴의 날 등 조직문화 혁신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내부에서 시작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국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행정서비스로 승화될 수 있도록, 나부터 솔선수범하여 모든 직원이 당당하게 함께 걷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조직문화 개선 「약속 탑5」서약서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오재협 (044-201-1341)
		담당자	사무관	신우창 (044-201-1345)

실천 서약서

불합리·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구현으로 당당하게 함께 걷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장관과 직원이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약속 탑5」를
선정하고 실천할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하나, 말하기 쉬운 조직, 불이익 없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업무는 일과 시간에만! 퇴근 후엔 '로그아웃'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혼자가 아닌 우리, 책임도 해결도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지시는 구체적으로, 보고는 명확하게, 피드백은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 의견은 슬림하게, 소통은 힙하게 일하겠습니다.

위 약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혁신적인 조직문화의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5.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송미령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최정록 최정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철 김철

농식품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김전호 김전호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주명

국립종자원장 양주필 양주필